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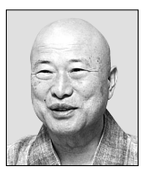
불암사 '별내동 효잔치'

일면 불암사 회주 스님은 4월 17일 남양주 별내 불암사에서 '별내동 효잔치'를 개최했다.



동국대 선수행자 과정 개설

수불 동국대 국제선센터장 스님은 5월 2일부터 12주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선수행자 과정'을 개설해 진행한다.



은평구 봉축탑 점등식

성운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 회장 스님은 4월 19일 은평구청 광장서 원각사지 10층탑과 아소카왕 석주를 본뜬 봉축탑을 점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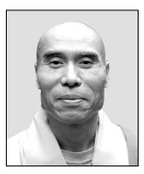
법주사 거사림회 창립

정도 보은 법주사 주지 스님은 4월 11일 법주사 대웅보전에서 180여 명으로 구성된 법주사 거사림회를 창립했다.



마곡사 제14회 신록축제

원경 공주 마곡사 주지 스님은 4월 22일 경내 일원에서 가수 한영애, 마야, 박강성 씨 초청 제14회 신록축제를 개최했다.



고양연등문화축제 개최

대오 고양 흥국사 주지 스님은 4월 27일 오후 6시 고양시 중앙공원에서 제15회 고양연등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참불선원 4주년 기념법회

각산 서울 참불선원장 스님은 4월 28일 오전 10시 30분 대치동 참불선원서 개원 4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한다.



송파구립 어린이집 개원

해성 연화원 대표이사 스님은 4월 11일 서울 송파구립 위례아이파크어린이집을 위탁받아 개원했다.



정토원 국운융창 기원 점등식

선진규 봉화 정토원장은 4월 19일 정토원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운융창 기원 점등식을 개최했다.



불교상담개발원 부원장 임명

이범수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 주임교수는 4월 20일 불교상담개발원 이사회서 부원장으로 임명됐다.

2017 조계종 불자대상 안동일 등 4명

정상석 · 금나나 · 이용대, 5월 3일 조계사 봉축법요식서 시상



사진 왼쪽부터 안동일 이사장, 정상석 시인, 금나나 박사, 이용대 선수

불기2561(2017)년 조계종 불자대상에 안동일 동산반야회 이사장, 정상석 시인, 금나나 박사, 이용대 배드민턴 선수가 선정됐다.

조계종 불자대상선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4월 19일 불자대상 수상자 선정 회의를 개최, 수상자로 이 4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최 측에 따르면 안동일 불자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23년 동안 조계종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며 각종 소송 및 법률문제 해결 등 종단 행정에 기여했다. 중앙신도회 고문, 한국재가불자연합 상임회장,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동의장 등을 역임했다. 1998년 이후 19년간 전국염불만일회와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을 이끌며 불교포교와 신행, 불교문화 발전에 정진해오고 있다.

정상석 불자는 뇌병변으로 인한 중증장애에도 문학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대표적인 불자 시인이다. 장애인불자모임 '보리수아래' 회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작사가로서 사회재활을 돕는 음반제작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금나나 불자는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미국 하버드대 생화학과 입학 후 현재 보건대학원 질병역학 및 영양학 박사로 활동 중이다. 생명과학자 커뮤니티 브릭이 선정한 '2015 한국을 빛낸 사람들'에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인터뷰 · 강연 · 저서 등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힘과 지혜를 줬는지 대중에게 진솔하게 전달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불교에 더욱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용대 불자는 체육계를 대표하는 배드민턴 선수로서 각종 대회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국가 및 사회에 기여한 바가 인정됐다. 2013년부터 중앙신도회 행복바라미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며, 돈독한 불심으로 불교계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불자대상 시상식은 오는 5월 3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서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진행된다. 불자대상은 사회 각계서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과 불교 위상을 널리 알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온 불자를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2004년 처음 시행된 이래 올해 14번째다. 지난해에는 허영범 대구지방경찰청장, 국악인 남상일 씨, 양학선 체조선수가 수상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이웃 위한 마음, 장학 실천으로 전해요"

장학기금 3000만원 기부한 연꽃모임 회장 이대원성 보살



"사람이 보배입니다. 항상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는 연꽃모임도 이런 사람에 대한 자비심에서 시작했습니다. 내생장학회 451명 회원들의 마음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합니다."

40년간 수행과 기도, 자비실천을 펼쳐온 부산 연꽃모임(회장 이대원성 · 사진)이 4월 17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장학기금으로 아름다운동행에 3000만원을 기부했다.

연꽃모임은 1977년 기도와 자비나눔을 매개로 이대원성 보살을 중심으로 부산지역 불자들이 결성한 수행공동체로 1990년 연꽃장학회를 결성, 승가장학금과 저소득 가정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을 후원하는 등 다양한 자비나눔을 실천해왔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2016년 4월 18일 내생장학회를 출범, 451명의 회원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온 결과다.

이대원성 보살은 "평생 기도를 해왔는데, 어느날 다른 이들을 위해 축원을 하자는 화두가 생겼다. 스님들도 평생 우리 재가신도들을 위해 축원하는데, 우리 재가신도들도 스님들을 위해 기도하자는 마음도 있었다"며 "내생장학회 출범 후 회원들이 십시일반 힘을 보탰다. 정해진 회비 만을 받기에 보다 많은 기부를 하기 위해 가족 모두가 가입한 이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스님도 함께 했다. 심산 스님은 "연꽃모임은 40년 동안 봉사회를 통해 부산지역에서 교도소 위문과 노숙자 쉼터 봉사 등 활동을 펴온 단체"라며 "꾸준한 활동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어 귀감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대원성 보살은 "매일 회원들의 이름이 적힌 책자를 갖고 예불마다 축원을 올린다. 그동안 스님들이 재가자를 위해 축원을 해줬지만, 정작 스님들을 축원하는 재가자는 없었다. 내생장학회를 계기고 스님들을 위한 기도도 진행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장학회에 수불 스님과 심산 스님 등 스님 20여 명도 동참했다"고 소개했다.

이대원성 보살은 "자비의 마음으로 남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축원"이라며 "그것이 행동이 되면 장학금도 되고 봉사도 된다. 공덕은 바로 남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며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보다 많은 이들이 자비심을 내줄 것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선교종, 제2회 법계 품서식 봉행



대한불교선교종(총무원장 삼주)은 4월 17일 종단 총무원(대전 중구)에서 '제2회 종단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다. 이날 품서식에서는 종정 법운 스님, 법계위원장 용암 스님, 이사장 화엄 스님 등 종단 임원 및 종도 100여명이 동참했으며 법계위원장 및 법계위원의 엄격한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총 17명의 스님이 법계를 품서했다.

총무원장 삼주 스님(양산 적조암)은 대종사 법계를 재성 스님(부산 보은정사)외 4명이 종사, 보각 스님(구미 지장사)외 4명이 종덕, 동덕스님 외 6명이 법계를 각각 품수했다. 한편 최혜숙 원장(수도암, 자비실천회 나눔회장)에게 종정 스님의 공로패가 수여됐다.

노덕현 기자

행복바라미, 대구 도심서 펼쳐져



행복바라미 지역문화제가 4월 18일 대구 동성로 야외무대에서 펼쳐졌다. 동화사 신도회 주최로 열린 이번 지역문화제에서는 마술공연과 대금 연주, 아코디언 연주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진행됐다. 문화제에는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을 비롯해 류병선 대구불교총연합회 신도회장, 함판덕 동화사 신도회장, 최길영 대구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해 기부에 동참했다.

노덕현 기자

신흥사 리투아니아 템플스테이



속소 신흥사(주지 우송)는 4월 7~8일 리투아니아인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들은 차담과 명상, 비선대 산행 및 예불 등을 통해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신흥사는 7월부터 9월까지 여름특별스테이 '여름, 설악의향기'도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 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4월 29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